

한국과 일본의 시간부사 비교연구*

-일본어 교육의 관점에서-

김 영 아**

(e-mail: larecancile@hanmail.net)

目 次

1. 서론
 2. 일본어 시간부사의 의미·용법
 - 2.1 공통점
 - 2.2 차이점
 3. 한국어 시간부사의 의미·용법
 - 3.1 사전적 의미
 - 3.2 공통점
 - 3.3 차이점
 4. 일본어와 한국어 시간부사 비교, 대응
 - 4.1 대응관계
 - 4.2 설문조사를 통한 사용실태
 5. 맺음말과 이후의 과제
-

1. 서론

일본어 시간부사에 대해 仁田 (2002) 는 〈起動への時間量〉에 관여하는 부사를 「僅少所要型」·「中期所要型」·「長期所要型」으로 분류 정리하였는데 그 중 사태의 시작, 기동까지 필요한 시간량이 지극히 적은 것을 나타내는 「僅少所要型」에는 「急に, 至急, 不意に, いきなり, やにわに, 突然, 突如, 咄嗟に, 唐突に, だしぬけに, にわかにな, すぐ (に), じき (に), 直ちに, たちまち, さっそく, 即刻」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원광대학교 일어교육학과 강사, 일본어학

(p.247)등이 속해 있다. 이들을 유의어로 설명하는 것에는 森田 (1994) , 田·泉原·金(1998), 小学館(2003) , 金 (2008) 등이 있는데, 「いきなり」와 「突然」과 같은 대표적인 부사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같은 그룹에 속해 있는 다른 시간부사에 대한 기술도 중심적인 의미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의미·용법 전반에 걸쳐서 상세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는 한국어 시간부사와 일본어 시간부사가 갖는 문체적인 특징, 내포된 감정, 초점이 되는 차이 등의 의미, 용법을 구분해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金(2014.3), (2014.5)에서는 유의어 관계에서 특징을 보이는 「いきなり, 不意に, 突然」과 「いきなり, だしぬけに, にわか」로 그룹을 나누고 실례에 입각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본고에서는 개별적으로 고찰한 「僅少所要型」 부사를 같은 그룹 안에서 그 의미·용법을 체계적으로 기술함과 동시에 부사간의 상호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또한 일본어교육이라는 측면에서의 대조 연구가 일본어 시간부사와 한국어 시간부사와의 일대일 대응을 통해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본어 시간부사 「いきなり, 不意に, 突然, だしぬけに, にわか」에 대응되는 한국어 시간부사 또한 유의어 관계에 있는 ‘갑자기, 느닷없이, 돌연(히)’와의 비교, 대조를 통해 각 시간 부사가 갖는 의미를 다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일본어 예는 朝日新聞 (「聞蔵」) 검색 (1985년1월1일~2012년 3월20일) 1), 한국어 예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네이버 뉴스 검색 기사와 ‘국립국어원 한국어 말뭉치’와 KAIST용례색인에서 출처하였다.

2. 일본어 시간부사의 의미·용법

金(2014.3),(2014.5)의 각각의 분석에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일본어부사 「いきなり, 不意に, 突然, だしぬけに, にわか」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도록 한다.

2.1 공통점

2.1.1 어떤 사태의 발생·성립의 급변화

- (1) 三歳になった孫が、北沢さんの膝の上で、a.ふいに言いだした。…言葉の遅かった孫は、三

1) 金(2014.3),(2014.5)의 예는 필요에 따라 재인용하였다.

歳の誕生日がすぎて、ようやくしゃべりだした。ところが、ほっとした北沢さんを相手に、b.とつぜん、そんな奇妙なことを話しはじめたのだ。…その幼児が言葉をしゃべるようになってまもなく、「ぼく、ウサギじゃないよ」と、c.いきなり言いたしたという。 (朝日2000.9.17.朝刊)

- (2) 予告もなにもなく出し抜けに、僕の心臓が烈しく音をたてはじめる。
(村上春樹 『海辺のカフカ(下)』)
- (3) 今年から指導要領が変わり、「読み書き」中心だった国語で「聞く話す」も教えられる。学校ぐるみで言葉に気を配ることになった。/「言語環境」という語がにわかに使われ始めた。 (朝日1992.10.28朝刊)
- (4) 一警告射撃や威嚇射撃もなくいきなり撃ってきたということか。 (朝日2006.10.4.朝刊)
- (5) 職員室で突然棚から書類が落ちてきた。 (朝日2011.4.10.朝刊)
- (6) …土砂降りの雨の中でふいに飛び出してきた影をはねた。 (朝日2000.4.2.朝刊)
- (7) 改札を通り抜けた見ず知らずの客が一直線に近づき、出し抜けに中国語で「ああ、あなたね」と話しかけてきた。 (朝日デジタル2007.9.8.)
- (8) スーパーカップで退場処分を受けた岩政、大岩が開幕戦は出場停止。「JリーグとACLが同時並行で進む。様々な状況への対応能力が問われる」というオリベira監督の言葉が、いきなり思わぬ形で現実となった。格下・札幌との初戦は、にわかに意味を帯びてきた。 (朝日2008.3.4 朝刊)

(1)~(3)에서는 「—シハジメル」·「—シダス」 등과 같은 문말 표현과 공기(共起)하여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국면을 나타내며, (4)~(8)은 「—テクル」와 공기하여 현상의 개시(開始),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사태가 일어나거나 개시하는데 지극히 적은 시간 안에 일어났다는 것을 나타낸다.

2.1.2 예기·예상치 못한 전조도 없던 사태의 발생, 변화

- (9) 札幌市東区の古書店「デイリーブックス」で本棚が倒れ、近くの小学5年鈴木愛菜さん (10) が意識不明の重体になっている事故で、一緒に事故に巻き込まれて軽傷を負った姉の愛梨さん (14) が、札幌東署の調べに「目の前の本棚が、前触れなくいきなり倒れてきた」と話していることが15日、わかった。 (朝日2009.10.16 朝刊)
- (10) 午前六時半ころ、何の前触れもなしに突然、銃声が静かな早朝の山村に響いた。 (朝日1998.3.16. 朝刊)
- (11) あるとき、バスに乗ると、いきなり声をかけられた。「パパパパ」。振り向くと、見覚えのある顔があった。「子どもを連れて永住しました。会いたかった」。バスの中で、地下鉄の駅で、調査会場で、不意に再会した「子どもたち」から、その後の報告を受けるのが一番うれしい。 (朝日1995.11.12.朝刊)

- (12) …作品展に飾られたのはアジサイやバラ、モモなど 50 点。初日に訪れた人が、出し抜けに「売ってほしい」。予想もしていなかったことで驚いたそうだが、それをきっかけに次々に声がかかった。(朝日1989.4.14朝刊)
- (13) はるか彦根城は雨の中(琵琶湖周遊) / …坂のところどころの杉木立の間から琵琶湖が見えた。にわかに雷鳴と夕立 1 2 時、ついに雨。昼近くから急に空が暗くなり、左後方の湖上では稲妻が縦に光り、激しい雷鳴が聞こえ始めた。(朝日デジタル2011.7.1)

(9) 「前触れなく」, (10) 「何の前触れもなしに」, (12) 「予想もしていなかったこと

で驚いた」에서 알 수 있듯이 예상도 못하고 아무런 전조도 없이 갑자기 일어난 사태였던 것을 나타낸다. (11)은 예상하지 못했던 아이들과 재회한 사태가 갑자기 발생함을 의미하며, (13)은 「にわか雨」라는 말이 연상되는 사태로 예기치 않게 갑자기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던 것을 나타내고 있다.

2.2 차이점

2.2.1 과정성과 비과정성

선행하는 사태로부터 순서·단계를 지나 하나의 사태가 기동(起動)하는 그 도중 경과를 과정이라고 한다면 「いきなり」, 「にわかに」, 「不意に」는 과정성을 갖는다. 실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14) …演習場から、「ドーン」という鈍い砲撃音が聞こえると、監視小屋にいた数人のメンバー全員が飛び出した。数キロ先の東側の斜面に設置されたりゅう弾砲の方向を見つめた。…ややあって、西側にある着弾地の方向から「ドーン」という地響きのような低い音が再び聞こえてきた。それぞれが記録用紙に時刻を記録したり、電話連絡をしたり、とにわか
- に慌ただしさが増した。この日早朝から監視を続けていた遠入健夫さん(六二)は「地元
- に迷惑はかけないといいながら、なんの連絡もなくいきなり夜間演習をやるとはあきれ
- る。これが海兵隊だと実感した。こんなやり方を見過ごしてはいけない」と怒りをあらわにした。午後七時十六分には、二発目の砲声
- が聞こえた。…浦田さんは「米軍は演習の安全性を強調しているが、住民の反対の思いを無視して、初日に、しかもいきなり何の事前連絡もなく危険な夜間演習から始めたことで、米軍の言葉を疑いたくなる」と話していた。(朝日1999.2.5.日朝刊)

(14)에서는 미군의 포격연습이 실시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事前連絡」이라는 순서를 밟지 않은 점, 또한 비교적 안전을 확인하기 쉬운 시간대에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보다 위험한 야간 연습에 들어간다는 단계를 밟지 않은 점을 「いきなり」로 나타낸다. 이와 같이 「いきなり」는 기동한 사태가

발생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과정의 일부, 또는 대부분이 누락되어 사태가 발생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지극히 적은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선행사태와 「いきなり」로 발생하는 사태에는 서로 관련이 있으며, 「いきなり」는 그 과정의 일부분이 누락되어있지만 과정성을 지닌다.

- (15) 東京電力福島第一原発事故を契機に、にわかに注目される自然エネルギー。
(朝日2013.1.29. 朝刊)

(15)은 지구온난화 위기 속에서 자연에너지가 주목받는 것도 세계의 큰 주류로서 당연하게 생각되는 변화로 「にわかに」가 나타낸다. 「にわかに」가 관여하는 사태의 변화는 당연한 흐름으로 예상되는 즉 과정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변화인 것이다. 단 상황의 변화 속도가 「東京電力福島第一原発事故を契機に」와 같이 어떤 계기에 의해 변화의 속도가 예상이상, 예기치 않은 빠른 속도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어서 「不意に」의 예를 보도록 하겠다.

- (16) (批評! 映画) 「サイレントヒル」 美しく、不意に残酷 【西部】
…本作は?まぎれもなくホラーである。それも昨今流行の和製ホラーでなく、対極と言っている合衆国伝統のダークファンタジー。ゴーストタウン〈サイレントヒル〉の地底に、忌まわしくもおぞましい怪物が潜んでおり、そこに紛れ込んだ主人公たちに次々に襲い掛かって来る… 本作でも、続々と登場する怪物の、関節の存在を無視した不自然な、それでいてダンスのようにリズムカルで美しい動きには、息をのむ。不意に、思い掛けない残酷シーンが展開したりもする。
(朝日2006.7.13.夕刊)
- (17) なりゆきまかせの展開が、おおらかなユーモアを生む。笑い転げる女性たちのコケティッシュな姿も魅力的。いつまでも続くと思った高揚感が、ふいに幕を下ろした後の切なさ。
(朝日新聞デジタル2010.1.22.)

(16)의 댄스와 같이 리드미컬하고 아름다운 움직임이 계속되리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잔혹한 장면으로 변화한 경우와 (17)은 「いつまでも」기대하고 있던 사태가 기대와 다르게 급하게 변화한 것을 나타내는 경우인 두 가지가 있다. 즉, 「いきなり」는 과정 도중에 수단이나 단계가 결여되어 이어지는 사태가 예상외로 단시간에 일어난 것을 나타내며, 「にわかに」는 과정 속에서 변화의 속도가 예기치 않게 빠른 급격한 변화를, 「不意に」는 과정 속에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 기대하고 있는 사태와는 다른 예기치 못한 사태의 변화는 나타낸다.

이어서 선행사태의 과정과 무관계인 사태성립이 순간적으로 일어난 것을 나타내는

「突然」과 「だしぬけに」는 비과정성을 갖는다.

- (18) ラジオの生放送に出演中、a.突然「昔、日本軍が南京を攻めたことをどう思うか」と聞かれたことがある。とっさのことで、答えに詰まった。／「私の知らない時代のことですし、何といえいいか、わからなかった。ふいに戦争の話が出たりすると、それまで一緒に騒いでいた中国人の友達との間にb.突然大きな距離ができたような気もして、悲しいです」 (朝日1998.5.11 夕刊)
- (19) 「おこりになったの?」と彼女は突然私を見上げながら、気づかわしうに問うた。「そじゃないんだ」と私はやっと彼女の方へ目をやりながら、それから話の続きでもなんでもなしに、出し抜けにこう言い出した。 (堀辰雄 『美しい村』)

(18) a는 선행사태와 관계없는 사태성립이 순간적으로 일어난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18) b는 전쟁 이야기에 의해 지금까지 지속되었던 중국인 친구와의 친한 관계가 끊기는 종결의 순간성(一瞬性)을 나타내고 있다. 즉 「突然」은 어떤 사태나 상태가 급변화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변화의 순간성(一瞬性)에는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 성립의 순간성(一瞬性)과 지속관계가 끝나는 순간성(一瞬性)을 나타내는 두 경우가 있다.

(19)은 「話の続きでもなんでもなしに」와 같이 선행사태의 과정과 관계없이 「だしぬけに」의 사태가 발생한 것을 나타낸다.

- (20) 巨大なナタで裂いたグランドキャニオン／…藁葺き屋根の民家がところどころ点在するのどかな田園風景のそのなかに、突然だしぬけに、山肌をむきだしにした白茶けた山塊が現れる。 (朝日 1992.12.15 週刊アエラ)

(20) 은 「突然」과 「だしぬけに」가 함께 사용된 예로 하나의 사태 발생의 순간성(一瞬性)을 나타내는 「突然」에 의해 경관의 변화가 순간적으로 일어난 것을 나타내며, 선행사태와 무관계인 사태의 성립을 나타내는 「だしぬけに」는 선행하는 경관과 변화 후 광경이 전혀 달라 그 격차가 크고 의외성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2.2.2 주관성과 객관성

본 절에서는 각 시간 부사의 서술의 초점을 고찰하도록 하겠다.

- (21) 「宮田町の商店街を通ってみたが、道路は狭いし、駐車場もない。あれじゃあ…」 / 「いっそニュータウンを造って、近代的な商店街を造ったらどうですか」 /

「今や独身社宅もマンション風。さすがトヨタの社宅といわれるようなものを造ります。家族持ちは、教育環境や下水道の整備が進んでいないと」/5月下旬、愛知県豊田市のトヨタ自動車本社を訪問した宮田商工会議所の視察団に、トヨタの担当幹部はいきなりきつい言葉を浴びせた。一行は宮田工業団地への進出決定に対する表敬のつもりだったのに「ゴングと同時にパンチを食らってダウンしたようなもの」と、専務理事の高崎昭光。(朝日1990.9.21夕刊)

(21) 에서는 공업단지로의 진출결정에 대해 도요타 본사를 방문한 지역 상공회의소 시찰단이 우선 경의를 표하기 위한 방문을 하고 인사를 나눈 후, 그 다음 회합부터 서서히 실질적인 이야기에 들어갈 것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도요타 담당간부로부터 「きつい言葉」로 현실적인 요구가 나왔다고 하는 예상치 못한 사태가 일어난 것을 나타내고 있다. ‘징이 울리자마자 펀치를 맞았다’는 예상되는 순서를 뛰어 넘은 예상외의 놀람, 「ダウンしたようなもの」는 그것에 의해 지극히 곤혹스러움을 나타낸다.

(22) a. だしぬけに 「私は以前から、エプロン姿で女中をしてみたかったです」と切り出され、美術家の中ザワヒデキ (47) は度肝を抜かれた覚えがある。事務所兼自宅を1993年に東京の目黒から世田谷へ引っ越したとき、知り合いのついでで、当時、美大に入りたての辛酸なめ子に手伝いに来てもらった。その初対面のあいさつの記憶である。目まぐるしく作業に追い立てられていると、一瞬の隙について急所をつかまれたように、彼女におもむろに行く手を立ちふさがれていた。「私の作品を見てもらえませんか」と再び b. だしぬけに懇願され、今度はうろたえた。

(朝日 2011.4.23 朝刊)

「だしぬけに」는 예기치 않은 일에 충격을 받고 (22) a. 「度肝を抜かれた」, b. 「うろたえた」와 같이 ‘깜짝 놀라다’ 또는 ‘당황했다’라고 말하고 있듯이 선행사태와 무관계인 사태가 예기치 않게 일어난 의미로는 「いきなり」보다도 의외성이 강한 것을 알 수 있어, 상정외(想定外)의 의미를 갖는다.

(23) 家の電球を替えるのは夫の役だった。電球が古くなり、点滅し始めると、ふいに夫の事を思い出す。(朝日2011.9.24.朝刊)

(24) …電車で揺られるうちに早朝に起こされたツケがまわってきたようだ。快い眠気に身をゆだねていると、ふいに口笛が聞こえてきた。(朝日2000.6.25朝刊)

「不意に」는 인간의 의지적 행위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으나, (23)(24)과 같이 「思い

出す、聞こえる、眠る、こみ上げる、現れる、よみがえる」 등과 같은 무의지동사와 공기하여 사태의 발생을 받는 사람에게 초점이 있다.

(25)…柳川喜郎町長が 9 6 年に暴漢に襲われた岐阜県御嵩町。当時、町長が担ぎ込まれた病院に居合わせた男性 (51) は、長崎市長銃撃に「こんなに不意に襲われたら、気をつけようがない。大変な時代だ」。(朝日 2007.4.19. 朝刊)

(25)는 상대가 예기치 못할 때 「襲われる」라는 상정외의 사태 발생에 「不意に」가 사용된 예이다. 「不意に」가 전혀 예측할 수 없거나, 선행 사태와 전혀 다른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초월한 예상 이상의 상정외(想定外)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즉, 「いきなり」는 과정에서의 누락에 의한 意外性을, 「だしぬけに」와 「不意に」는 과정 속에서 전혀 다른 사태의 발생에 대한 예상외 이상의 상정외를 나타낸다. 이러한 「いきなり」, 「不意に」, 「だしぬけに」는 사태의 변화나 행동을 받는 쪽의 사태의 주관적인 파악을 근거로 해서 의외성, 돌발성을 나타낸다. 그 의외성과 돌발성에 대한 이미지로는 「いきなり」, 「不意に」, 「だしぬけに」전부 플러스, 마이너스 이미지가 있으며, 「だしぬけに」와 「不意に」의 경우에는 발생한 사태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상정외이기 때문에 사태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충격을 주거나 놀람 또는 당혹, 반발 같은 감정을 불러 일으켜 마이너스 이미지인 경우에 자주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종래의 연구에서 「だしぬけに」는 동사 「出し抜く」의 어의에 의해 조금 마이너스적인 이미지가 있다고 기술되고 있으나 (7),(12)와 같이 플러스이미지인 경우에도 사용되어, 근년의 예를 보면 그렇게 한정적이지 않고 중립적인 이미지로 변화하고 있다²⁾. 또한 「不意に」도 예상치 못했던 변화에 대해 마이너스적인 사태인 경우에 사용된다고 지적되어 왔으나 (11)과 같이 플러스인 경우도 있다³⁾.

이어서 「にわか」와 「突然」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26) このあたりは奥琵琶湖と呼ばれる。空気が変わり、にわかに静かでひなびた風景となる。(朝日デジタル2011.6.10.)

「にわか」는 (3) 「使われ始めた」, (8) 「脚光を浴びた」 등 수동적 또는 자연추이적인 사태의 급격한 변화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서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26)의 「トナル」, 또는 형용사·형용동사가 변화를 나타내는 「一ナル」와

2) 金(2014.3)pp.180-183 참고.

3) 金(2014.5)pp.170-172 참고.

공기하여 「華やかになる」「騒々しくなる」와 같이 상황의 변화를 나타내는 예가 많이 보인다.

(27) 横浜市神奈川区の路上で、見ず知らずのお年寄りに突然殴りかかり、助けようとしたお年寄りにもけがを負わせたとして、無職の男が二十六日、神奈川署に傷害容疑で緊急逮捕された。男は調べに対し「むしゃくしゃしたからやった」などと話しているという

(朝日1999. 8.27朝刊)

(28) 一瞬の出来事だった。現場を取り囲んだ人の話などによると、突然、「がつーん」という大きな音が聞こえた。

(朝日1994.4.21朝刊)

(29) ドーンと突き上げるような揺れがきた——。春先から噴火の恐れを抱いてきた岩手山周辺の住民を、三日夕、震度6弱の地震が突然襲った。

(朝日1998. 9. 4朝刊)

「突然」은 (27)의 의지적 행위, (28)의 무의식 행위, (29)의 자연현상 모두 가 능하며 한 순간에 성립한 동작·작용·현상에 관여하여 사태성립의 순간성에 초점을 두고 폭 넓게 사용된다.

(30) N T T 「いきなり逮捕」に騒然 青ざめ、連絡に走る社員／
「真藤前会長が逮捕されました」――6日午後7時過ぎ、テレビから速報が流れると、それまで静かだったN T T社内がにわかに騒然となった。「病院に入ったんでしょ? いきなり逮捕なんて、まさか……」と、青ざめる幹部。4階の総務部周辺は、連絡などに走り回る社員で騒がしくなり、食堂から夕食を運ぶ社員と衝突して皿などが粉々に砕け散る一幕もあった。

(朝日 1989.3.7.日 朝刊)

(30)는 「いきなり」와 「にわか」가 표제어와 본문에 같이 쓰인 예로 「にわか」가 N T T社内の 상황을 객관적으로 묘사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いきなり」는 한 간부의 발언으로 인해 발생한 사태에 대해 의외성, 또는 경악을 나타낸다.

이어서 「いきなり」와 「突然」이 근접하여 사용된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31) 懸命に努力する帰国者がいる一方で、簡単に職場を変わった、休んだりする人が多いのも事実だ。「一番困るのは突然やめてしまうこと。いきなり来て、『退職金と慰労金をくれ』だからね。夏休みも中国へ帰るといって、急に一カ月だよ」。東京都内のある会社の総務課長はぼやく。

(朝日1996.11.8. 夕刊)

「突然」은 「やめる」와 같이 ‘그만두다’라는 사태가 순간적으로 성립한 것을,

「いきなり」는 일을 그만두기 전에 통보도 하지 않고 퇴직금과 위로금을 받으려고 한다는 과정의 누락에 대한 의외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신문의 예를 보면 표제어에는 「突然」, 같은 내용의 본문에는 「いきなり」가 사용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 (32) 行徳交番で男が自分に発砲 a.突然巡査襲い、すきつき拳銃強奪／千葉市川市行徳駅前2丁目の行徳駅前交番で16日早朝、東京都江戸川区の無職男(30)が事情聴取していた巡査(24)の拳銃を奪い、自分の頭を撃って重傷を負った事件は、通勤客らを驚かせた。行徳署の調べでは、男は同日午前3時すぎ、地下鉄東西線行徳駅前にある飲食店を訪れ、同僚だった店長の顔をいきなり数回殴ったという。店長が110番通報。巡査と警部補(52)に午前5時すぎから、同交番1階で傷害の疑いで事情を聴かれていたという。男は終始無言だったという。同5時50分ごろ、巡査が電話で男の家族に身元などを確認、切ったところをb.いきなり後ろから襲われたという。…笠井幸生・行徳署長は「c.突然襲いかかられて制止中の出来事。詳細は調査中」と話した。

(朝日 2003.10.17.朝刊)

표제어에는 (32) a. 「突然」을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순간적인 사태성립을, 같은 내용의 본문에는 동료 점원에게 얼굴을 예고 없이 맞았다는 점과 침묵하다가 경찰을 뒤에서 덮친 점 등에 대한 의외성을 나타내기 위해 (32)b. 「いきなり」가 사용되었다. 또한 (32)c.에서는 서장이 담담하게 발생한 사태를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을 때 「突然」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상을 정리해보면 「いきなり」, 「だしぬけに」, 「不意に」는 사태의 주관적인 파악에 근거하여 의외성, 돌연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서술의 초점은 새로운 사태 성립과 그것에 의해 발생하는 주관적인 감정에 있다. 「にわかに」는 수동적, 또는 자연추이적인 사태의 급격한 변화를, 「突然」은 사태성립의 순간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서술하는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

3. 한국어 시간 부사의 의미 · 용법

3.1 사전적 의미

일본어 시간부사 「いきなり, 不意に, 突然, だしぬけに, にわかに」에 대응하는 한국어 시간부사에는 ‘갑자기, 느닷없이, 돌연(히)’ 등이 있는데 그 의미를 사전의 기술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전적 의미
갑자기	(표)미처 생각할 겨를도 없이 급히 (연)뜻하지 않게 별안간 (우)1) 미처 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각할 겨를 없이. 뜻하지 아니하게. =불시로, 별안간, 돌연(突然), 느닷없이, 뜻밖에, 불쑥, 홀연히 (2) 시간적으로 아주 짧은 기간에
느닷없이	(표)부→느닷없다 - 나타나는 모양이 아주 뜻밖이고 갑작스럽다. (연)부 (아무런 예상을 할 수 없었던 일이)갑작스럽게 (우)부 아무 정조도 없이 뜻밖에, 갑작스럽게=갑작스레, 갑자기, 불현듯이
돌연(히)	(표)부 예기치 못한 사이에 급히 (연) 부 갑자기 별안간/ 돌연히 부 갑작스럽게 (우) 부 예기치 못한 사이에 급히 = 갑자기, 별안간

이상과 같이 시간의 순간적 속성을 나타내는 부사로 ‘갑작스럽게 아주 짧은 때’ 라는 공통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세 부사가 교체어로서 설명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체적인 면에 대해서는 『朝鮮語大辭典』(2013)에 의하면 「갑자기, 돌연(突然)히, 느닷없이의これらの三つの副詞は類義語として使われるが、느닷없이がより口語的な語である。」라고 ‘느닷없이’가 ‘갑자기’ ‘돌연(히)’보다 구어적인 점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어 시간부사를 일본어 시간부사와 비교하면서 실례에 입각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찰하도록 하겠다.

3.2 공통점

3.2.1 어떤 사태의 발생·성립의 급변화

- (33) 시누이가 갑자기 대들듯 소리를 질렀다. (이혜경, 문학과지성사, 2002)
- (34) 아버님은 등산화를 벗으시더니 느닷없이 나뭇가지를 내앞에 내밀며 “아가, 이것이 뭔지 아느냐?” 하고 물으셨다. (좋은생각, 1999)
- (35) “여봐라.”조운은 돌연 밖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문 앞에서 대기하던 통인이 다급하게 뛰어 들어왔다. (김영하, 문학과지성사, 2001)
- (36) 호젓한 산 속에서 김씨하고 마주치기 전에 빨리 돌아갈 작정으로 갑자기조급하게 굴기 시작했다. (윤홍길, 문학사상사, 1987)
- (37) ...그녀를 품에 안게 된다고 상상하자 아하스페르츠의 젊은 가슴은 느닷없이 뛰기 시작했다. (이문열, 민음사, 1989)
- (38) 바람이 돌연 거세지기 시작했다. (조경란, 문학과지성사, 2001)

한국어 시간부사 ‘갑자기’ ‘돌연(히)’ ‘느닷없이’는 일본어 시간부사와 같이

(36)~(38)은 「-기 시작하다」와 공기하여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국면을 나타내며, (33)~(35)와 같이 어떤 사태 발생의 성립이 단시간에 급하게 일어난 것을 나타내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3.2.2 예기·예상치 못한 전조도 없던 사태의 발생, 변화

- (39) "최근 전화통화에서도 전혀 이상한 느낌을 받지 못했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동아일보사, 2002)
- (40) …문제가 있다면 정상적인 통로로 제기하면 될 일이지 아무런 사전 조치없이 느닷없이 경비정을 내려 보내 『이곳은 우리 영해』라고 어거지를 쓰는 것이 바로 그런 … (조선일보사, 1999)
- (41) 나는 영겁결에 들고 있던 수화기를 놓칠 뻔했다. 당신은, 하고 상대가 돌연 입을 열었기 때문이다. (조경란, 문학과지성사, 2001)

(39) 「전혀 이상한 느낌을 받지 못했다」, (40) 「아무런 사전 조치 없이」와 같이 아무런 전조도 없이, 예상치 못한 사태의 발생을 나타내며, (41) 의 ‘수화기를 놓칠 뻔했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말 할 것을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3.2.3 共起關係

- (42) 우리는 발길을 돌려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뜻밖에 갑자기 소나기가 퍼붓기 시작했다. (조선일보사, 조선일보사, 2002)
- (43) …머리 위에 떨어지는 빗방울 느닷없이 바람이 불더니만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좋은생각, 좋은생각, 2000)
- (44) 두 팔로 껴안고 몸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안간힘을 썼다. 바람이 돌연 거세지기 시작했다. (조경란, 문학과지성사, 2001)
- (45) 어느 것 하나를 겨누려다 말고 동육은 혼자서 피식 웃어 버렸다. 갑자기 어렸을 적 일이 떠오른 탓이었다. (윤홍길, 문학사상사, 1987)
- (46) 그 리고 방학을 맞아 아빠에게로 온 품이는 느닷없이 그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윤후명, 민음사 1994)
- (47) 취재진은 방호복과 특수 마스크를 착용했다. …배가 제방을 끼고 돌면서 테트라포트라 불리는 빨 모양의 콘크리트 구조물 옆을 지나가는 순간 방사능측정기 화면이 돌연 새빨강게 변했다. (중앙일보 2014.03.07.)

한국어 시간부사는 (33)~(35)은 인간의 의지적 행위, '(42)~(44)'는 자연현상, (45)~(47)은 무의지적 행위에 전부 사용되어 동작, 작용, 현상을 폭넓게 나타낼 수 있다. 이점은 「突然」만이 가능했던 일본어 시간부사와 큰 차이점을 보인다.

3.3 차이점

3.3.1 문체상의 특징

문체상의 특징을 볼 때 ‘갑자기’의 유의어로 ‘별안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별안간’은 ‘갑자기’와 거의 모든 문맥에서 대체가능한 유의어로 한자어 시간부사로 문체상의 변별이 가능하지만 사용범위가 좁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일본어 시간부사 「いきなり, 不意に, 突然, だしぬけに, にわかに」에 대응되는 한국어 시간부사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별안간’은 「不意に」의 의미에만 대응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본어 시간부사가 공통적으로 대응하는 한국어 유의 시간부사를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별안간’은 고찰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렇다면 ‘갑자기, 느닷없이, 돌연(히)’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사용경향을 보기 위해 조선일보 기사검색(2003.2.15.~2013.2.15.)과 국립국어원 말뭉치 검색, KAIST 용례색인을 통해 그 사용수를 조사하였다.

	조선일보	국립국어원	KAIST용례색인	합계
갑자기	11,750	1,771	11,431	24,952
별안간	136	81	587	804
느닷없이	669	177	1,131	1,977
돌연(히)	1,030	109	1,053	2,192

신문기사에서 그 사용수를 보면 ‘갑자기’가 11,750, ‘돌연(히)’는 1,030, ‘느닷없이’는 669, 일반서적, 신문, 잡지도 포함한 「KAIST용례색인」에서 그 사용수를 보면 ‘갑자기’가 11,431, ‘돌연(히)’는 1,053, ‘느닷없이’는 1,131로 ‘느닷없이’의 사용수가 신문기사의 예와 비교 하였을 때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느닷없이’가 아무런 징조도 없이 갑작스럽게 뜻밖에 일어난 사태, 현상에 대해 의외성을 강조할 때 쓰이며, 구어적인 문체적 특징을 갖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하는 텍스트나 논리적인 신문과 같은 텍스트에서 그 사용수가 적은 것을 입증하고 있다.

3.3.2 과정성과 비과정성

- (45) 1년 전 말다툼을 벌였던 월셋방 여주인을 갑자기 찾아가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테일리안 2013.12.07)
- (46) “팔팔하게 오래 살다가 갑자기 죽어야죠” / 최근 일본에서 건강과 장수, 장례 문화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건강하게 장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기를 바란다’는 뜻의 ‘핀핀코로리’(약칭 핀코로) 또는 이의 알파벳 첫 글자를 딴 PPK가 새로운 생사관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세계일보 2011.02.27)

(45)은 1년 전 말다툼 이후 그 다음에도 여러 차례 또는 우연히 라도 만나거나, 다툼이 있는 과정 없이, (46)은 병에 걸리거나, 사고라는 단계 없이 죽기를 바란다는 과정이 결여된 사태의 성립을 ‘갑자기’가 나타내고 있다.

- (47) 유망한 은행원이었던 남편이 느닷없이 사직서 제출하고 사표를 내고 고향으로 내려가자고 했다. (좋은생각,1999)
- (48) 암전히 텔레비전만 보고 있는 줄 알았던 아들 입에서 느닷없이 쌍욕 튀어 나왔다. (공선옥, 문학과지성사 2002)

‘느닷없이’는 (47) 유망한 은행원으로 계속 진급하며 은행원으로 근무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48)텔레비전을 보는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선행 사태와 관련해서 아무런 예상 징조도 없이 뜻밖이고 갑작스럽게 사태의 발생을 나타낸다.

- (49) ‘소치 올림픽’ 러시아 피겨 선수 아델리나 소트니코바가 김연아의 기자회견 도중 a.느닷없이 자리를 뜨는 비매너적인 행동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 프리스케이팅 경기 직후 메달리스트들의 공식 기자회견이 진행된 가운데 소트니코바의 인터뷰가 끝나고 김연아가 ‘은퇴 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때 아델리나 소트니코바는 가져온 러시아 국기를 챙기더니 b.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가는 돌발 행동을 보였다. (머니투데이 2014.02.21.)
- (50) 소트니코바 ‘비매너’…김연아 인터뷰 도중에 a.갑자기 아델리나 소트니코바(18)가 김연아(24)의 인터뷰 도중 b.갑자기 자리를 떠 ‘비매너’ 논란이 일고 있다./…아델리나 소트니코바는 경기가 끝난 뒤 진행된 공식 기자회견에서 김연아가 말을 하고 있는 도중에 c.갑자기 자리를 떴다. 아델리나 소트니코바는 김연아가 한 외신 기자로부터 은퇴 후 계획에 대

해 질문을 받고 있는데 d. 갑자기 러시아 국기를 챙겨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갔다. 러시아 기자들이 대부분이던 기자회견장은 자국 금메달리스트가 떠나자 e. 돌연 어수선했다. 김연아 또한 아델리나 소트니코바의 돌발 행동에 당황 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신문 2014.02.21.)

(49)와 (50)은 같은 날 일어났던 일에 대한 신문기사로 ‘느닷없이’와 ‘갑자기’, ‘갑자기’와 ‘돌연’이 근접해서 사용된 예이다. (49)b와 (50)a~d의 ‘갑자기’는 기자회견 시 인터뷰를 하던 선수가 자신의 차례를 마치면 양해를 구한 후 나가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데 소트니코바는 김연아에게 아무런 얘기도 없이 자리를 떠나 양해를 구하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과정이나 단계를 밟지 않은 과정이 결여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49)a의 ‘느닷없이’는 선수들의 인터뷰가 끝날 때까지 있을 것이라는 과정의 흐름 속의 예상과 달리 전혀 예기치 못한 뜻밖의 사태 변화를 나타내어 ‘갑자기’와 ‘느닷없이’는 과정성을 갖는다. (50)e는 ‘돌연’은 예기치 못한 사이에 선행사태와 전혀 다른 사태나 상태의 변화가 순식간에 일어난 것을 나타내어 비과정성을 갖는다.

3.3.3 주관성과 객관성

(51)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최고 수장인 이성환 청장은 경찰청 생안·교통·경비국장, 정책 보좌관, 경무담당관 등 경찰청 고위 간부들과 함께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국민 행복 치안 현장간담회’에 참석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청장은 이날 오전 7시 a.돌연 인천 방문 일정을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장이 온다고 해서 1주일 동안 준비를 많이 했는데 b.갑자기 방문을 취소하니 황당하고 힘이 빠진다”고 털어놨다. (인천일보 2014.03.06.)

(52) ...수업을 마치고 3층에서 내려오던 50대 여교사 C씨는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교복 치마를 짧게 줄여 입은 B양을 발견했다. 당연히 C씨는 “별점을 줘야겠다. 교무실로 가자”고 말하며 B양의 손을 잡아 끌었다. / 그런데 별안간 B양이 교사의 손을 뿌리치더니 욕설을 퍼부으며 C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느닷없이 제자에게 따귀를 맞고 머리채를 잡힌 C씨는 안경이 벗겨지고 머리를 수차례 얻어맞는 수모를 겪다 남학생의 도움으로 겨우 교무실로 돌아올 수 있었다. (뉴테일리 2012.05.03.)

(51)a의 ‘돌연’은 방문 취소라고 하는 예기치 못한 사이에 선행사태와 전혀

다른 사태나 상태의 변화가 순식간에 성립한 것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51)b의 ‘갑자기’는 준비기간이 1주일이나 있었는데 당일 취소라는 사태 발생에 대해 ‘황당하고 힘이 빠진다’와 같이 의외성을 나타내고 있다. (52)는 선생님께 지적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로 교무실로 따라가는 일이 예상되는 선행사태와는 다른, 예상도 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사태로 급변화한 상정외의 사태를 ‘느닷없이’가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갑자기’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과정이나 단계를 밟지 않은 과정이 결여된 변화를 나타내어 「いきなり」와 같이 의외성을, ‘느닷없이’는 계속되는 사태에 대한 예상이나 기대와 어긋난 반대되는 사태의 급변화를 나타내어 「不意に」, 「だしぬけに」와 같이 상정외의 사태에 대한 충격, 놀람, 반발 등의 마이너스적인 이미지의 구어체문장에 자주 사용된다. ‘돌연(히)’는 예기치 못한 사이에 선행사태와 전혀 다른 사태나 상태의 변화가 순식간에 일어난 것을 「突然」, 「にわかに」와 같이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나타내고 있다.

4. 일본어와 한국어 시간부사 비교, 대응

4.1 대응관계

일본어 시간부사 「いきなり, 不意に, 突然, だしぬけに, にわかに」와 한국어 시간부사 ‘갑자기, 느닷없이, 돌연히’는 ‘—하기 시작하다’와 같은 문말 표현과 공기(共起)하여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국면을 나타내며, 어떤 사태의 개시(開始), 상태의 변화가 지극히 적은 시간 안에 일어났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그 사태들이 예기, 예상할 수 없고 전조도 없이 갑자기 일어난 사태인 것을 나타내는 공통점을 갖는다.

먼저 일본어 시간부사의 차이점을 보면 선행하는 사태로부터 순서, 단계를 지나 한 사태가 기동하는 그 도중 경과를 과정이라고 한다면 「いきなり」, 「にわかに」, 「不意に」는 과정성을 갖으며, 「突然」, 「だしぬけに」는 선행사태와 무관계인 사태가 일어나는 비과정성을 갖는 차이점이 있다. 표현의 초점에 대해 보면 「いきなり」와 「だしぬけに」는 인간의 의지적 행위에 초점이 있고, 「不意に」는 무의지동사를 수식하여 사태 발생을 받은 쪽에게 초점이 있다. 「突然」은 의지적인 행위, 무의지적인 행위, 자연현상 모두 쓰이며, 순간적으로 성립하는 동작, 작용, 현상을 수식하여 폭넓게 쓰인다. 「にわかに」는 수동적 또는 자연추이적인 사태의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는데 초점이 있다. 또한

「いきなり」는 예상되는 과정 도중에 순서나 단계의 결여이므로 이어지는 사태가 예상외 단시간에 일어난 것에 대한 의외성을 가지며, 「不意に」와 「だしぬけに」도 일어나는 사태를 받는 사람에게는 想定外이므로 충격을 받거나, 놀라거나 당혹, 또는 반발하는 등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즉 「いきなり」, 「だしぬけに」, 「不意に」는 사태의 주관적인 파악에 근거하여 의외성, 돌연성을 나타내며, 「にわか」는 수동적 또는 자연추이적인 사태의 급격한 변화를, 「突然」은 사태성립의 순간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서술하는 차이점이 있다. 종래의 연구에서 「だしぬけに」, 「不意に」는 마이너스적인 이미지가 있다고 하나, 실례를 보면 마이너스, 플러스 이미지를 갖는다. 「にわか」는 어떤 계기에 의해 변화의 속도가 예상이상, 예기치 않은 빠른 속도였다는 것을 말하는데, 기동까지의 소요 시간량은 어느 정도 시간적 길이가 있어서 다른 시간부사의 경우와 다르다. 또한 「にわか」의 초점은 급변화 후 계속되는 사태, 현상에 있는 점이 다른 부사들과 다른 특징을 갖는다.

이어서 한국어 시간부사와 일본어 시간부사와 비교하며 그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다. 한국어 시간부사 ‘갑자기’, ‘느닷없이’, ‘돌연(히)’는 의지적인 행위, 무의지적인 행위, 자연현상 모두 쓰여 동작, 작용 현상 등에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어 일본어 시간부사에게는 없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갑자기’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과정이나 단계를 밟지 않은 과정이 결여된 변화를 나타내어 「いきなり」와 같이 의외성을, ‘느닷없이’는 계속되는 사태에 대한 예상이나 기대와 어긋난 반대되는 사태의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어 「不意に」, 「だしぬけに」와 같이 상정외의 사태에 대한 충격, 놀람, 반발 등의 마이너스적인 이미지의 구어체문장에 자주 사용된다. ‘돌연(히)’는 예기치 못한 사이에 선행사태와 전혀 다른 사태나 상태의 변화가 순식간에 일어난 것을 「突然」, 「にわか」와 같이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나타내고 있다.

일본어 시간부사 「いきなり, 不意に, 突然, だしぬけに, にわか」와 한국어 ‘갑자기, 느닷없이, 돌연(히)’의 의미, 용법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대응관계를 표로 정리하였다.

구분	시간부사 내용	일본어 시간부사					한국어 시간부사
		いきなり	突然	不意に	だしぬけに	にわかに	
공통점	어떤 사태의 발생·성립의 급변화	○	○	○	○	○	갑자기, 느닷없이, 돌연(히)
	예기·예상하지 못한, 전조도 없던 사태의 발생·변화	○	○	○	○	○	갑자기, 느닷없이, 돌연(히)
차이점	과정성	○	×	○	×	○	갑자기, 느닷없이
	전 사태와의 연결성	×	×	×	×	○	갑자기
	순간성(一瞬性)	×	○	×	○	×	돌연(히)
	인간의 의지적 행위	○	○	△	○	×	갑자기, 느닷없이, 돌연(히)
	자연현상, 무의지적 행위	△	○	○	×	○	갑자기, 느닷없이, 돌연(히)
	의외성	○	×	○	○	×	갑자기, 느닷없이
	주관성	○	×	○	○	×	갑자기, 느닷없이
이미지	±	×	ㄱ	ㄱ	×	±:갑자기, ±돌연(히), ㄱ:느닷없이	

4.2 설문조사를 통한 사용실태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들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일본어 부사의 특징적인 의미 용법을 나타내는 「いきなり」 15例, 「突然」 12例, 「不意に」 10例, 「だしぬけに」 6例, 「にわかに」 11例⁴⁾를 제시하고,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한국어시간부사와 일본어 시간부사를 각 두 개씩 선택하는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대상은 대전 소재 ㅎ대학 일어일문학과 전공 3, 4학년으로 일본어 능력시험 1급 또는 2급이거나 JPT 700점 이상인 학생 25명이다.

그 결과를 보면 「いきなり」는 응답자의 88%이상을 선택하였으며, 이에 해당하는 한국어 시간부사는 ‘갑자기’와 ‘느닷없이’를 선택하였다. 「いきなり」가 선택되지 않은 예는 6예인데, 한국어 시간부사를 ‘느닷없이’와 ‘돌연(히)’로 선택했을 때 「いきなり」가 아니라, 「突然」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한국어 시간부사를 ‘갑자기’와 ‘느닷없이’로 해석했을 경우, 「いきなり」와 같이 「突然」을 응답자의 73%가 선택 하였는데, 한국어 시간부사를 ‘돌연히’로 선택한 예문에서는 「突然」만을 선택하였다. 「不意に」는 ‘갑자기’와 ‘느닷없이’ 중 ‘느닷없이’의 선택 빈도가 높았으며 마이너스적인 경우에 「いきなり」와 같이 선택하였

4) 설문조사에 제시된 일본어 예는 김(2014.3), (2014.5)에서 제시된 신문기사와 소설의 예를 인용하였으며 한국어 대역은 필자가 하였다.

다. 다만, 마이너스적인 경우가 아닐 때는 「いきなり」와 「突然」을 선택하였고, 「不意に」는 선택하지 않았다. 「だしぬけに」는 6예에서 선택되었는데, ‘돌연히’로 해석되었을 때 「突然」과 함께 선택하였다. 즉 일본어 학습자들은 ‘갑자기’와 ‘느닷없이’에 대응되는 일본어 시간부사를 「いきなり」로 인지하고 있으며, ‘돌연(히)’는 「突然」, ‘느닷없이’의 마이너스 적인 경우에는 「不意に」와 「だしぬけに」를 선택하였으며, 특히 「だしぬけに」는 회화문이면서 「言う」라는 동사와 공기할 때 선택하였다. 그러나 「にわか」는 선택된 예가 없으며, ‘갑자기’로 해석하여 「いきなり」로 대체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가 일본어 유의부사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국어의 영향을 받아서 일대일대응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일본어 교육현장에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본어와 한국어 시간 부사의 대응표를 제시, 실례를 들어 설명한다면 학습자들의 오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5. 맺음말과 이후의 과제

본고에서는 첫째, 일본어 시간부사 「いきなり, 不意に, 突然, だしぬけに, にわか」의 의미·용법을 체계적으로 기술함과 동시에 부사간의 상호관계를 명확하고자 하였다. 둘째, 일본어 시간부사에 대응되는 한국어 시간부사 또한 유의어 관계에 있는 ‘갑자기, 느닷없이, 돌연(히)’와의 비교, 대응을 통해 각 부사가 갖는 의미를 다면적으로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 결과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들이 일본어 유의부사 중 적절한 시간부사를 선택하고 그 의미, 용법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다만 본고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로 사용실태를 살펴보았는데 오용분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점은 이후의 과제로 삼고자한다.

【參考文獻】

< 한국어 자료 >

※ 국어 사전

- 『표준국어대사전』(1999) 국립국어연구원.
『우리말큰사전』(1992) 한글학회 어문각.
『연세한국어사전』(2006) 두산동아.

※ 출전

- 국립국어원 한국어 말뭉치
KAIST 한국어 코퍼스
조선일보, 동아일보, 네이버 뉴스 검색 기사

< 일본어 자료 >

※ 일본어 사전

- 大阪外国語大学朝鮮語研究室編 『朝鮮語大辞典 上巻』(2013) 角川学芸出版.
小学館辞典編集部(編)(2003) 『類語例解辞典—使い方の分かる—』新装版 小学館.
田忠魁·泉原省二·金相順(編)(1998) 『類義語使い分け辞典—日本語類似表現のニュアンスの違いを例証する—』研究社.
飛田良文·浅田秀子(1994) 『現代副詞用法辞典』東京堂出版.
松井栄一(編)(2005) 『小学館日本語新辞典』初版 小学館.
森田良行(1994) 『基礎日本語辞典』第 6 版 角川書店.

※ 저서 및 논문

- 仁田義雄 (著) (2002) 『副詞的表現の諸相』くろしお出版. pp. 201-258
浅野百合子(1982) 「イキナリ・ダシヌケニ・トツゼン・フイニ」国広哲弥編 『ことばの意味3 辞書に書いていないこと』, 平凡社. pp.154-160
金美燕 (2008) 「時間表示の副詞の意味記述」 『日語日文学研究』 66, 韓国日語日文学会. pp.1-15
金英兒 (2014.3) 『日本語史の新視点と現代日本語』小林賢次·小林千草 編, 「僅少所要型の時間 副詞の意味と用法」, 勉誠出版. pp.165-185
(2014.5) 「「いきなり」·「突然」·「不意に」の意味用法について」 일본언어문화 제27집,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pp.441-462
江雯薰(2008) 「時間副詞に関する一考察—「とつぜん」と「ふいに」を中心に」 『岡大 国文論稿』 36, 岡山大学文学部言語国語国文学会. pp.58-68

※ 출전

- 朝日新聞 (「聞蔵」) 検索 (1985年1月1日~2012年 3月20日)
· 朝日デジタル検索
· 堀辰雄 (1951) 『「風立ちぬ·美しい村」』 「美しい村」新潮社.

要 旨

本稿では、日本語の時間副詞「いきなり、不意に、突然、だしぬけに、にわか」を類義語関係の中で、意味・用法を考察した上で、それに対応する韓国語の時間副詞「Gabjagi, Neudateobsi, Dolyeon(hi)」と比較・考察することによって、日本語と韓国語の時間副詞が持つ意味・用法を多面的に考察することができた。

その結果をみると、日本語と韓国語の時間副詞は、事象の生起に関わる「—シハジメル」・「—シダス」・「-hagisizakhada」と共起して、ある事象の生起局面を表し、事象の開始、状態の変化の生起・開始が極めてわずかな時間のうちに起こったことを表す。また、それらの事態が、予期・予想できず、前触れもなかった唐突な事態であったことを表すという共通点を持つ。相違点をみると、「いきなり」・「にわか」・「不意に」は過程性を持ち、「突然」と「だしぬけに」は非過程性を持つ。表現の焦点をみると、「いきなり」と「だしぬけに」は、行為をした人に焦点があり、「不意に」は、無意志動詞に掛かって、事態の発生を受け止めた人に焦点がある。「にわか」は、受動的、あるいは自然推移的な事態の急激な変化に用いられ、「突然」は、意志的な行為、無意識行為、自然現象のいずれも可能で、ある瞬間に成立する動作・作用・現象に掛かり、幅広く用いられる。また、「いきなり」、「だしぬけに」、「不意に」は事態の主観的な把握に基づいて、意外性、想定外を表し、主観性を持つ。それに対して、「突然」と「にわか」は客観的に把握し叙述するため、客観性を持つ。韓国語の時間副詞「Gabjagi, Neudateobsi, Dolyeon(hi)」は、意志的な行為、無意識行為、自然現象のいずれも可能で日本語の時間副詞と違って、三語とも幅広く用いられている。「Gabjagi」、「Neudateobsi」は過程性を、「Dolyeon(hi)」が非過程性を持ち、主観性には「Gabjagi」、「Neudateobsi」が、「Dolyeon(hi)」は客観性を持つ。

キーワード：일본어, 한국어, 시간부사, 비교연구, いきなり, 突然, 不意に, だしぬけに, にわか, 갑자기, 느닷없이, 돌연(히), 일본어교육

투 고 : 2014. 11. 30
1차 심사 : 2014. 12. 13
2차 심사 : 2015. 1. 3